

합격수기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9월 16일부터 박문각 인강을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해 2025년 10월 31일 시험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과목명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서류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작성
점수	43	22.5	29.25	40.5	16.5	38.25	26.25

평균	54.0625
합격선	50
합격여부	합격

확인 >

당시 시험 관련 정보가 부족 했는데, 우연히 박문각 법무사를 알게 되고, 가장 합격생을 많이 배출하는 학원이기 때문에 별다른 고민없이 박문각 법무사로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병행하며 준비했기 때문에 공부 시간 확보가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평일에는 퇴근 후 평균 3시간~3시간 30분, 주말에는 5~6시간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려 노력했고, 약속도 잡지 않고 거의 빠지는 날이 없을 정도로 공부를 했습니다.

2차 과목 제가 선택한 교수님은

민법·민사소송법은 이혁준 교수님,

형법은 이재영 교수님,

형사소송법은 김영환 교수님,

민사신청서류는 이천교 교수님,

등기신청서류·등기법은 김기찬 교수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다들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라 이번에 떨어져서 내년에 다시 도전을 할 때에도 아마 같은 교수님 강의를 들었을 것입니다.

인강은 시간이 부족해서 1.7배 정도로 거의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 여름까지는 1, 2 순환 강의만 들었고, 기본책만 보면서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024년 시험 이후에 다시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할 때에는 예비, 2025 올패스 강의를 들었습니다.

1순환과 2순환 때는 기본서 복습 위주로 공부했고, 3순환부터는 모의고사 내용과 요약집을 보면서 공부를 했고, 3순환까지 모든 강의를 빠짐없이 수강했습니다. 사실 첨삭을 받기 위해 모의고사를 쓰는 시간이 부족하여, 모의고사를 별도로 응시하지는 않았지만, 강의는 모두 들으며 쟁점과 답안 구조를 익히려 노력했습니다.

막판 시험 3달 전 부터는 기본서보다는 2·3순환 모의고사 문제를 반복해서 보며 쟁점 정리와 목차 구조를 계속 떠올리는 방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저는 첨삭을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직장과 병행하다 보니 인터넷 강의를 듣는 진도를 따라가기에도 버거웠고, 모의고사 첨삭 제출 일정을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사시 준비를 해본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주관식 글쓰기에 대한 불안감이 컸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답안을 ‘제대로’ 써보는 연습이 충분하지 않다는 불안이 컸습니다. 막판 시험 2주 전까지도 글 쓰는 실력이 눈에 띄게 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걱정도 많이 되고 포기할까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이미 본 문제를 반복하며 쟁점을 정확히 아는 데 집중했습니다. 목차는 심플하게 결론, 근거를 기본으로 연습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첨삭을 이런저런 이유로 받아보지 못한 분들, 제대로 된 모의고사 연습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불안해하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한 연습을 해보지 않았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합격의 결과는 따라온다고 믿습니다.

이 수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